

第145回國會 (閉會中)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治 會議錄 第26號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3月13日(月)
 場 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145號室)

議事日程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2.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聽聞會

審査된案件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1面
2. 小委員會構成의件..... 12面
3. 聽聞會證人의出席日時變更의件..... 14面

(10時21分 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6次 本 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委員長 李基澤 먼저 委員會運營에 관한件을 議事日程에 추가해서 上程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들께 먼저 報告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月2日 저희들 委員會 第25次 決議에 따라서 當 特委의 證人出席要求에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아무런 通報없이 證人으로 出席하지 아니한 金斗煥 前大統領과 李順子 前 新世대育英會 會長에 대하여 오늘 10時에 日 海財團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聽聞會와 新世대育英會및新世대心臟財團關聯非理調查聽聞會를 開議하여 證人으로 出席해서 證言할 것을 두 分의 證人에게 각각 同行命令狀을 지난 3月10日에 發付하여 當 特委職員으로 하여금 同 證人의 居所인 江原道麟蹄郡北面龍岱里 百潭寺로 가서 同行命令狀을 執行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分의 證人은 當 特委의 同行命令狀에 대하여 "89年3月13日 열리는 當 貴特委의 聽聞會에 본인의 出席證言을 요구하는 貴下의 同行命令狀을 受領하였으나 주변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當 特委의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書翰을 金

斗煥 李順子 각 證人名義로 보내음으로써 當 特委의 同行命令을 拒否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열리기로 되어 있는 日 海財團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聽聞會와 新世대育英會및新世대心臟財團關聯非理調查聽聞會는 오늘 議事日程으로 上程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同行命令 拒否事案에 대하여는 현재 5共清算과 관련한 崔圭夏 金斗煥 前大統領의 證言聽取方法에 관한 政治圈의 論議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그 進行過程을 보아서 對策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여러 委員들의 高見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開議되는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聽聞會에 尹錫民 前大韓船洲會長을 오늘 10時에 證人으로 出席 證言하도록 지난 3月3日 出席要求書를 發付하였으나 지금 현재 出席하지 않고 있습니다.

證人으로 出席하지 아니한 尹錫民證人에 대하여는 追後 當 特委에서 이에 상응한 措置가 취해져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오늘 不實企業聽聞會의 證人으로 또 出席要求를 한 바 있는 趙重勳 韓進 그룹 會長으로부터 不出席한다는 그 事由書가 當 特委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大韓航空設立 20周年 海外 行主事管 및 3月11日부터 中國과 領空通過 定期·不定期路線 開設合意 및 海運定期船 開

設協議를 위해 2週間 中國訪問키로 되어 있어서 不出席하겠다는 事由書가 3月10日 提出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聽聞會의 狀況變更에 따라서 9時30分부터 3黨 幹事會議을 열고 當 特委會에서 不實企業聽聞會의 日程을 再調整키로 협의한 결과 이렇게 大體的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月13日의 聽聞會證人 尹錫祚 前大韓船洲社長의 證言聽取를 3月17日의 聽聞會에 出席要求토록 하고 3月14日의 聽聞會 證人 梁正模 證人和 權哲鉉證人에 대하여는 3月16日의 聽聞會에 證人으로서 出席要求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幹事會議의 不實企業聽聞會 日程變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幹事會議의 合意事項을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부터 3月17日까지의 不實企業聽聞會에 證人出席 요구한 그 18人 중에서 引受企業 關係證人 9人중 여섯 사람의 證人으로부터 不出席事由書가 제출되어 있고 또 세 사람의 경우도 出席이 미정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數의 證人이 不出席하는 사태에 대하여 여러 委員의 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本 特委會의 5共非理 調查活動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유일하게 세 證人중 나와 있는 한 證人인 尹錫祚證人에 대해서도 本人의 요청에 의하면 오늘 아침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금 이 國會에 들어와 있는 이 순간까지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 特委會에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委員長은 事務處에 各각 抗議 兼 그러한 정체를 불명의 사람들을 이 國會에서 내몰아주도록 요청을 했고 아마 國會에서는 摘發해서 이 國會에서 내몰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證人不出席의 사태에 대해서 本人뿐만 아니라 우리 野 3黨 여러 委員들께서도 많은 실망과 분노를 지금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證人들이

聽聞會에 不出席하고 있는가 歷史의 拒逆이요 우리 國民들의 慾望을 拒逆하고 있는 이 不出席한 證人들의 그 이유는 도대체 那邊에 있겠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여러 委員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委員長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현재 盧政權이 5共非理를 剔抉한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加害者側 성격의 證人이 이에 편승해서 不出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證人에 대한 政府 與黨의 積極적인 不出席壓力이 되겠습니다. 일부 新聞에서도 보도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오늘 證人으로서 나와야 될 尹錫祚證人도 어제 그저께까지 자기는 國會에 나와서 자기가 당한 모든 것을 밝히고 그 현장에서 檢察에 自進出頭라도 해서 拘束당하겠다는 그 결의가 오늘 이전 하루 이틀전에 바뀌었습니다. 여러가지 情狀을 볼 때 이것도 政治的 外部的 압력에 의해서 심경변화가 왔다 이렇게 化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4黨合意로 출발한 特委會를 民正黨이 不參하고 特委會政局을 깨려하는데에서 國會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킴으로써 5共特委會에 나와야 될 證人들이 지금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盧泰愚大統領의 拘人制에 대한 拒否權 행사로 인해서 證人의 出席을 강제할 實質的 方法이 우리 特委會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特委會聽聞會에 證人들이 不出席함으로써 日程을 변경하고 연기해야 하는 또 그로 인해서 5共非理에 관한 調査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비극적 사태에 대해서 盧泰愚大統領은 拘人制를 拒否한 장본인으로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점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무엇인가 그 분의 다른 생각이 國會에 제시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事項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幹事會議에서 협의한 日程變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 特委會의 調查運營에 관한 全面的인 여러 委員들의 高見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 委員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崔洛道委員이 發言申請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崔洛道委員 조금 전에 幹事會議에서 대충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證人訊問을 오늘 하기 위해서 나온 尹錫祚씨에 대해서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청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委員長님께서 얘기한 그 日程대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同意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證人 不出席問題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온 國民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또 우리 國會가 특히 5共清算의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이 판국에 民正黨 同僚委員들이 이렇게 不出席한 데 대해서 참으로 통분과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지적의 말씀이 계신 대로 이 政權에서 이러한 5共清算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證人出席에 힘주는 커녕 오히려 방해한다고 심증이 가는 데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日刊紙에서도 소위 政府의 高位層과 與黨의 高位層이 모여가지고 銀行家와 企業家가 5共聽聞會에 證人으로서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日刊紙에 특 記事로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온 國民과 함께 분노하고 경악할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 政府와 이 與黨에 바로 5共清算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實證的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지금 겸허한 마음으로 國民 앞에 그동안 있었던 5共清算을 위한 모든 聽聞會를 강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金斗煥 李順子씨가 오늘 證言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정이 주변의 사정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주변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霧下의 날씨에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戰鬪警察의 방해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 政權의 방해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주변의 사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事案이 전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설혹 證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政權에서 오히려 방해한다고 우리는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措置를 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바로 證言하기로 되어 있는 趙重勳씨는 大韓航空의 海外行事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特委가 出席要求한 通知書를 받고서도 특히 신문에 여러차례 報道되어서 자기가 13日 證言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自社의 海外行事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핑계는 國會를 모독하는 것이고 國會를 경시하는 것이고 우리의 5共特委의 聽聞會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용서할 수 없는 사실로 思料됩니다.

따라서 大韓航空의 海外行事に 꼭 그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피 미리 報道를 했고 또 法的인 要件에 의해서 7日前에 通知해서 3月3日 그것을 접수하고서도 그 뒤에 外國에 나가 버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國會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정이 오늘 이 자리에서 報告된 대로 그러한 단순한 이유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면 마땅히 國會는 그가 證言을 拒否한 사실에 대해서 告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은 趙重勳證人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 조사된다고 하면 告發할 것을 提議합니다. 또 이미 나가 있는 사람도 다음 證言하는 날짜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로 기피한다고 하면 마땅히 告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企業들이나 國民이 注視하고 있는 이러한 不實企業에 대한 聽聞會문제는 빼앗긴 측은 원한에 사무친 그리고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은 날로 통분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權力型非理와 不正에 의해서 그들의 會社를 政治資金과 연계된 듯한 그러한 이유때문에 빼앗아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땅히 그것은 13代國會가 가려서 國民앞에 소상히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被害者들이 이 자리에 와서 證言할 수 있도록 張玲子證人이 실지로 本人이 말한 대로 건강이 나쁘다고 하면 우리 特

委가 決議해서라도 病院에 入院을 시켜서라도 그가 證言할 수 있도록 措置해줄 것을 建議합니다.

尹錫民씨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어제 밤부터 政體不明의 사람들이 그의 家宅과 또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會社의 幹部들 家宅을 에워싸고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 마땅히 이것은 이 政權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尹錫民씨도 이 자리에 나와서 證言할 수 있도록 우리 特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被害者가 이 자리에 나와서 證言할 수 있도록 그러한 措置를 함과 동시에 加害者라고 볼 수 있는 政府에서 있는 사람들 또 引受한 企業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지금 外國에 나가 있지마는 언제 들어올 것인가를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證言할 수 있다고 하는 날들을 점검해서라도 그들이 편리한 날을 잡아서라도 기어이 證言臺에 세워서 이러한 不實企業問題 5共의 不正과 非理問題 政治資金과 연계된 듯한 引繼引受問題를 날날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集約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證言을 拒否한 趙重勳씨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현재처럼 없다고 하면 告發하는 것이 마땅하고 앞으로 모든 加害者側 證人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로 證言을 거부하고 歸國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다면 告發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使命으로 생각합니다. 또 被害者에 대해서도 충분히 證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뒷받침을 다하고 政府에게 최선을 다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加害者와 被害者의 證言 그리고 여기에 介入되었던 政府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證言이 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告發과 措置를 취할 것을 委員長에게 建議합니다.

○朴相千委員 委員長! 發言權 줘 주세요.

○委員長 李基澤. 예. 몇 사람 發言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決定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發言하시고 그 다음에 發言해 주세요.

○金東周委員 統一民主黨의 金東周委員입니다.

먼저 아까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3黨幹事間의 議事日程變更 그 부분에서는 同意를 합니다.

방금 委員長이 序頭에 말씀하셨고 또 대부분의 委員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마는 盧泰愚政權은 5共清算과 民主化 意志에 있어서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이와같은 權力型 非理와 不正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當 特委의 歷史的 責務를 다하기 위하여 本委員이 강력한 議事進行發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與黨이든 野黨이든 兩大選擧를 통해서 5共清算에 대한 것은 우리가 國民에게 한 公約입니다. 이 5共調査는 國民과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재 與黨은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野3黨만 聽聞會를 하게 된 선적인 책임은 盧政權과 政府 與黨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民主黨은 자기를 일방적으로 5共調査가 충분히 되었다고 하면서 特委政局의 終結을 宣布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不實企業整理에 관계되는 非理調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失業者가 되고 얼마나 많은 企業家들이 그것도 韓國에서 10대에 들어가는 企業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가고 또 刑務所로 가야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로 인해서 나온 막대한 남의 재산을 몇몇 사람이 앉아서 政治資金 많이 내고 政府 與黨에 협조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 사실은 民主主義國家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國會가 與野 合意로서 이 調査를 위한 聽聞會에 6共和國이 5共和國과 어떤 연관이 없다면 안 나오는 분에게도 스스로 나가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事實與否와 그 진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副總理가 주관하는 經濟閣議 혹은 經濟團體會議에서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끔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企業家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現政

權과 民主黨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國民을 속이고 國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國民의 輿論을 무시한 政權 또 國民의 輿論을 무시한 統治者의 末路가 어떻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도 이렇게 政局을 이끌어 가는 現 政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委員들이 그렇게 애써 조사한 日海財團 새세대육영회 心臟財團에 대한 마지막 證人인 兪斗煥씨나 李順子씨가 왜 여기에 못 나오니까?

國會에서 두번이나 適法한 節次를 밟아서 同行命令狀을 발부했는데도 안 나오는 그 배경과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委員長께서는 주변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무슨 사정입니까.

그리고 本委員은 정말 유감스럽고 또 한 사람의 政治人으로서 담담한 것이 있습니다.

왜 盧大統領이나 與黨 政治指導者들은 이 5共非理調査를 政治的인 흥정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것입니다. 國會議員은 個個人이 立法機關입니다. 國民의 뜻에 따라서 國會의 決議에 의해서 5共調査를 하고 있는데 왜 몇몇 政治指導者들이 모여서 政治的인 흥정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本委員이 내일 特委委員을 그만두더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에 崔委員도 말씀하셨지만 某 日刊紙에 난 記事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民主黨의 重要幹部이며 또 우리 特委의 重要與黨幹部인 사람이 出席을 하겠다 하는 銀行長이나 前職關係 그리고 企業人들에게 오히려 參席을 못하게끔 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國會法에 있는 國政調査妨害罪 또는 教唆罪를 적용해서 분명히 國會가 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政府關係者가 이야기하기로는 企業家들이 聽聞會에 나오면 企業活動에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5共特委나 國會

가 언제 企業家들에게 지장을 주었습니까?

많은 流言蜚語가 있다면 조용하게 진실을 진실대로 밝히자는데 바로 이 聽聞會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 도망갑니까?

흔히 國民들 중에서는 5共聽聞會하면 日海財團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同僚委員도 이야기했지만 韓進「그룹」같은 데는 4,207億이라는 엄청난 돈을 政府로 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15年據置 15年償還해서 30年後에 갚는 조건인데 그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國家稅金을 탕감받은 것이 바로 338億9,200萬원입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 國家稅金을 탕감하면 이 부담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勤勞者 俸給者 全 國民이 손해를 보고 한사람에게 特惠를 주는 이 事件을 조사하지 말자는 말씀입니까?

또 韓一合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據置期間 償還期間은 대부분 大同小異합니다. 또 企業의 평가에 있어서 엄청난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여기에도 559億5,200萬원이라고 하는 租稅減免惠澤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또 明보「그룹」만 하더라도 제가 엇그제 김철호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물론 그분이 經濟秩序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道義的으로 또 法律的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3,000餘億이상되는 財産을 불과 1,300餘億원에 어느 特定企業 바로 한국화약에 인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被害者 1,700名이 지금도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그 財産을 그대로 처분해도 다 갚을 수 있고 政府가 이렇게 많은 稅金을 탕감해야 되는 부분을 다 깨끗이 할 수 있다는데도 어떤 政治的인 하나의 힘잡으로 이런 特惠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이건설 최원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영토건 인수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해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時價 3,000億 가는 것을 300億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特惠를 우리가 國會에서 國民 앞에서 조사를 하자는 것이 바로 오늘의 聽聞會인데 이 聽聞會를 第5共和國을 단절한다는 第6共和國 盧泰愚政權이 더군다나 執權黨

인 民正黨이 이 자리에 不參을 하고 故意的으로 방해한다는 것을 저는 國民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結論的으로 저는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22日부터 열리는 人權聽聞會에는 꼭 現政權이 證人들이 다 나오는데 협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佛敎宗團에서 온 문제의 文書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光州 圓覺寺에 15坪되는 法堂에 최루탄 6·70발을 까넣고 또 80年 法難事件當時 전국에 있는 전 寺刹에 軍火발을 신고 戒嚴軍이 들어가서 심지어 스님들을 劄狀없이 잡아다가 三淸教育隊 보낸 사람 심지어 배 창자가 터져 죽은 사람 지금도 불구로 있는 사람 전체를 그 당시 戒嚴下에서 制度圈 言論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佛敎가 천하에 못살 정도 같이 해서 그 많은 불교인들에게 상처를 입힌 이 사건을 우리 5共特委에서 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國務總理는 國民에게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그 다음에 陸軍會館에서 몇몇 종교 관계자들 모아 놓고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종교를 보장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력히 法難事件에 대해서는 그 責任者를 또 責任이 있는 자를 또 그 眞相을 國民에게 밝혀야 돼! 제일교회 사건만해도 그렇습니다. 박형규목사가 지금도 자기 교회를 놔두고 왜 中部警察署 앞에서 거리에배를 봐야 됩니까. 지금도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래서 종교가 보장됩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國民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야 되고 그 眞相을 조사하자는데 根本的으로 目的이 있습니다.

結論的으로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現政權과 民正黨은 우리 野黨이 주장하는 이 聽聞會에 동참하라 이 말입니다. 證人도 이 이상 더 방해하지 말고 나와야 되고 나는 그 證人이 나오지 않으면 委員長에게 이런 建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 野 3黨에서 證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出席하지 않을 때는 拘引制度를 우리가 해야 된다 했을 때 民正黨과 政府는

거기에 拒否權 行使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同行命令狀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全斗煥大統領에게 가져가도 20m 밖에서 얼굴도 못 찾아보고 오는 이런 制度 法의 모순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國會에서의 證言鑑定法을 지금 4월에라도 臨時國會를 召集해서 우리는 拘引制度로 또 證人이 證人出席要求를 받았을 때 國會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制度的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점을 建議를 하면서 議事進行을 마치겠습니다.

○林春元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林春元委員 말씀하세요.

○林春元委員 平民黨의 林春元委員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永登浦拘置所에서 보낸 張玲子證人에 대한 不出席에 관한 서면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本委員이 이 發言을 하는 것은 지난 3月9日 調查第2班 班長資格으로 저희가 永登浦拘置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러 委員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들은 이번 聽聞會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 동안 調查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張玲子證人을 永登浦拘置所 女舍1棟 3舍 2拘置所 방안에까지 가서 調查를 했을 때 張玲子證人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 張玲子證人은 本委員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이 안에서 獸死를 면하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병원에까지 내보내 주면 나와서 證言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 그 다음 날 이런 公文을 만들었습니다. 本人이 느끼기에 그 拘置所 안에서 여러가지로 本人은 신변에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本委員은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本委員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식으로 動議할까 합니다. 張玲子證人은 지금 政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經濟事犯입니다. 經濟事犯이 15年이라는 최장의 刑을 받은 것도 문제려니와 그 사람은 우리가 면접알지를 검토한 바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權正達이 다 해 먹고 재가 나가면 밝혀지겠지요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저희는 찾고 이 權力型 第5

共和國에 있어서 不正非理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에 張玲子씨의 證言은 참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5共非理特委는 이 張玲子女人을 刑執行停止나 또는 病保釋 등의 措置를 통해서 病원에 수용 될 수 있도록 政府當局에 촉구하는 決議를 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永登浦 拘置所長은 심지어 이영숙이라는 假名으로 富川에 있는 성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 이미 여러차례 入院 加療시킨 바도 있습니다. 現行 行刑法 第29條1項에 보면 所內에서 受刑者에게 適當한 治療를 하는 것이 不可能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當該 所長은 所外의 다른 病院에 移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지금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이 사람을 그 拘置所안에 놔둔다고 하는 것은 이 政治權力과 介在된 不正非理를 감추겠다는 것 밖에는 本委員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여자는 그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곳으로부터 밖으로 자유스럽게 나와서 우리 國會의 聽聞會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安養矯導所에 갔을 때도 金澈鎬씨를 우리가 調査하는 과정에 그 사람도 經濟事犯으로 15年 求刑을 받고 있습니다. 36億의 脫稅 追徵金으로 2年3個月을 더 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1,000萬원씩 사는 것입니다. 이런 놈의 꼴이 지금 현행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자유스럽게 밖에 나와서 우리 證言臺에 서야 합니다. 이 사람 證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李哲熙씨도 나와서 證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달라지는 公文이 우리 5共特委에 또 날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5共特委는 당연히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 5共特委에 나와서 證言해야 할 證人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本委員은 動議하고자 하는데 특히 張玲子女人에 대해서 病保釋 내지는

刑執行停止 등을 司法的節次를 통해서 拘置所로부터 밖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 當 委員會가 政府에 촉구하는 決議를 해 줄 것을 정식으로 動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盧武鉉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基澤 盧武鉉委員 말씀하십시오.

○盧武鉉委員 저는 새로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각 委員님들의 말씀 중에는 몇가지의 動議案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주된 요지는 政府與黨이 本 5共特委員의 調査活動을 방해하고 있고 또 그것이 國會의 機能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주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에 관해서 조금 더 그와같은 주장을 좀더 具體的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委員님들께서 舉論하신 同行命令狀에 대한 金斗煥前大統領의 拒否答辯書와 또 어느 經濟日刊紙에 報道했던 내용중에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 앞서 말씀하신 委員님들의 動議案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 보고자 합니다.

光州特委의 同行命令狀에 대해서 金斗煥大統領이 보낸 答辯이 얼마전 신문에 한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시한번 이 특委에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9年2月22日字 同行命令狀에 대한 거부요지인데 제례하옵고 앞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貴委員會에 보낸 수차의 서한에서 이미 밝힌 바와같이 지난 80年 光州에서 있었던 불행한 事態와 그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비극적 결과는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로 인한 恨과 응어리를 하루빨리 아물게 하고 國民和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本人은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가능한 모든 힘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本人의 어떠한 행동도 그것이 새로

은 政治的 갈등을 초래하거나 이 나라에 불신과 증오의 골을 깊게 함으로써 새로운 不信의 씨앗이 되어서는 아니되겠기에 貴委員會가 本人에게 요구하는 힘력의 方法도 院內 各政派間의 合意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요지의 答辯입니다.

그리고 “本人은 貴委員會의 이와 같은 決定이 있을 때에는 前職大統領이라는 신분을 구실로 이를 회피하거나 거절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가능한 모든 힘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 다만 光州特委가 前職大統領에게 요구하는 힘력의 方法이 院內 各政派間의 合意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나온다는 결론입니다.

만일에 各政派가 合意를 토대로 해서 出席을 요청한다면 前職大統領이라는 신분을 구실로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政府와 與黨이 前職大統領의 國會出席은 不可하다는 것이 前職大統領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 다른 이유없고 前職大統領에 대한 예우다 그러나 前職大統領은 이 歷史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與黨이 양해만 한다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本人이 예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국 그와같은 答辯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政府與黨이 예우를 해주자 하는 뜻에서 그리고 本人이 前職大統領으로서 國會에 나오는 것이 매우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해서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政府與黨의 政治的 이유때문에 出席을 방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答辯書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89年3月4日 中央經濟新聞에 나온 政府와 民主黨間의 黨政經濟懸案 政策討論 녹음부분을 일부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經濟的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약 3분의1 정도는 本特委의 證人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金重權議員은 “國會5共特委 對策을 논의하자”

野黨側은 “不實企業整理 의후을 가리기 위해 당시 銀行長까지 證人으로 채택했다 지금 청문회를 다시 시작하면 어려움이 많다 證人 소환과 文書 현장검증에 대한 方案을 강구해보자.”

趙副總理 “오늘 會議의 주안점이 도대체 뭐냐” 李鍾贊事務總長 “5共特委도 중요한 문제이니 이자리에서 같이 논의토록 하자” 金重權議員 “企劃院 財務部 國稅廳에 대한 文書檢證을 거부키로 하자 昨年 國政監査에서 財務委의 不實企業調查活動으로 일단락 됐고 盧泰愚大統領의 提示에 따라 검찰조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고 본다” 趙副總理 “5共特委에 관해 黨政이 기본인식을 같이 하자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政府에 요구하는 事項이 뭐냐!

예컨대 商工部長官이 企業代表에게 聽聞會에 나가지 말라고 설득하라는 얘기냐” 金議員 “文書檢證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銀行長 調查는 곤란하다 財務部와 銀行監督院은 이를 막아야 한다 企業人出席은 여러 (채널)을 통해 거부해야 한다” 金鍾基農林水產委員長 “不實企業 整理調查問題로 企業人들이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는 外國에 피신한 사람도 있다 經濟에 충격을 주는 일은 政治的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許亨九 法務部長官 “國會가 요청하면 별다른 재간이 없다” 李總長 “輸出市場을 누비고 다니는 굴지의 企業人들을 1個月이나 出國禁止시키란 말이나! 企業人의 經濟活動을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왜 그렇게 겁을 내고 그러는가?” 許長官 “노력하겠다 證人出席을 요청하더라도 자료보충 등을 이유로 버티어 보겠다” 趙副總理 “수시로 만나 얘기를 주고 받자” 이런 취지로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중간에 金重權議員은 昨年 國政監査 財務委의 不實企業 調查活動으로 일단락되었거나 檢察 調查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고 본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구구히 설명이 필요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法務部長官이 本特委에 出席해서 단 한마디도 남들할 수 있는 答辯을 하지 못했던 점은 이미 特委委員들 모두가 잘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許九法務部長官의 발언입니다. 國會가 요청하면 별다른 재간이 없다 法務部長官의 答辯입니다. 결국 法律上 모두 들어야 되는 것인데 與黨이 政府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政府가 직접 거부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企業主들에 대한 調査拒否까지 함께 중용하고 협박하라는 취지의 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具體的 사실은 앞에서 다른 委員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같이 바로 오늘날 特委의 調査活動을 盧泰愚大統領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特委委員은 물론 國民 모두가 盧泰愚大統領의 選舉公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第5共和國 非理의 清算公約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5共和國 非理의 중요성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本 民主黨 特委 調査 팀에서 만든 不實企業整理에 관련한 非理 調査를 왜 해야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리된 우리 委員들간에 의견을 함께 非理 調査의 特委 調査의 目的에 관해서 委員들과 함께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文章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써 이 特委의 중요성을 대신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不實企業整理 關聯非理 調査는 그 整理 및 引受過程에서의 對象選定에 관련해서 또 資産 및 負債의 평가에 관련해서 엄청난 非理가 있었고 各種 金融 特惠와 租稅 減免등 우리 國民이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引受者에게 줌으로써 그 댓가로서 엄청난 政治資金이 수수 되었다고 보는 것이 不實企業整理에 관련된 5共和國 非理에 대한 본질이고 이것을 굳이 調査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非理를 과거의 非理로서 들추어내서 누구를 힐끗고자 함이 아니라 政治權力의 도덕성을 회복시킴으로써 歷史를 바로잡아 나가고 또 經濟的 측면에 있어서도 經濟外的인 폭압적 권력에 의해서 왜곡된 經濟秩序를 바로 잡아서 市場 經濟秩序를 확립하고 經濟民主化를 실현한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特委의 調査는 어제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일의 일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朴相千委員 말씀하시지요.

○朴相千委員 지금 여러 委員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 特委가 취해야할 實務的인 일에 대한 所見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지금 證人이 不出席하는 事態 이 事態의 배후에는 民正黨의 그릇된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일일이 열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이 점에 대해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出席하지 아니한 民正黨 委員들에 대해서 또 民正黨에 대해서 아주 具體的인 두가지 점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特委를 열어서 聽聞會를 하고 證人을 召喚하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엄청난 非理에 대해서 규명함으로써 法과 정의의 세워서 누구나 法을 지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遵法精神을 확립해서 政府與黨이 그토록 강조하는 社會安定을 지키자는 것이 特委 調査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特委 調査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상기시킵니다.

두번째는 지금 特委에 證人들을 出席하지 못하도록 무슨 黨政間의 승인을 열고 또 前職 大統領도 民正黨까지 4黨이 합의해서 요청하면 나오겠다고 했는데 4黨이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民正黨의 短見이라고 생각합니다.

國會의 威信을 추락시키면 이것은 단순히 國會自體의 威信만 추락되는 것이 아니라 議會主義自體에 대한 威信이 추락되는 것입니다.

議會主義를 강조하면서 國會의 威信을 추락시킨다 이 두 가지 점을 다시 말하면 特委 調査活動이 遵法精神과 관련되어서 社會安定의 기초가 되고 또 國會의 威信問題는 이나라 議會主義 장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하지 않은 民正黨 委員들에게 환기시키면서 지금 討論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할 문제를 實務的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期日變更의件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期日은 저희들이 열었으니까 오늘 召喚狀을 받고 出席안한 사람에 대해

서는 證人 不出席의 罪가 이미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것이예요. 3月14日 出席을 要求한 證人들에 대해서 우리가 3月14日 期日을 3月16日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3月16일이나 17日로 바꾸면 3月14日 不出席한데 대해서는 不出席의 罪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送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서회들이 내일 이 자리에 일단 나왔다가 헤어지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인지 專門委員이 送達與否를 확인해가지고 檢討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가 金斗煥 前 大統領夫人의 同行命令 不應에 대한 對策입니다.

同行命令에 不應하면 國會侮辱罪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政治圈의 중요한 문제임으로 各黨의 指導部와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토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告發對象 不出席證人에 대한 對策問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不出席한 證인이 7日前에 送達을 받았는지의 與否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送達을 받았을 경우에 不出席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不出席證人에 대한 告發問題에 대한 決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데면 尹錫民證人의 경우는 拘束令狀이 發付되어서 手配中이기 때문에 出席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 봄이 아파서 못 나오는 우리 林春元委員께서 말한 張玲子證人 이런 사람도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會社에 행사가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안됩니다.

이것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점검을 專門委員에게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證人의 出席을 妨害하고 있는 이事態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檢討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證人의 出席을 妨害할 경우에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12條 2項의 규정에 의해서 證人不出席의 경우와 동일한 刑罰으로 處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단순히 市井의 폭력배들이 證人의 出席을 妨害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身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國會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國會의 威信 또 議會主義의 관행의 확립을 위해서 身分의 高下를 막론하고 國會에 證人으로 出席하지 못하도록 尊重하거나 妨害하는 쪽에 대해서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12條 2項에 의해서 이들을 發覺해서 告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어떤 決議가 있어야 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는 비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梁性佑委員 말씀하세요.

○梁性佑委員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朴相千委員의 제의에 대해서 선복 동의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하여튼 오늘처럼 이 國會의 威信을 失墜케 하는 證人不出席問題에 대해서 저로서는 참으로 분개하면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크게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會議가 너무 긴시간 가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금방 朴相千委員이 제의한대로 이 자리에서 속히 決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여 이 國會가 國會의 威信을 失墜케 하는 條件들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분명하게 대응을 한다는 사실을 國民들에게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예. 趙昇衡委員 말씀하세요.

○趙昇衡委員 여러 同僚委員들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委員長님께서 의사를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까봐서 잠깐 도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朴相千委員께서 그런 취지에서 發言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자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證人出席의 妨害問題에 관한 어떤 對策의 問題인데 또 證人 出席을 妨害하고 이 特委 調査를 妨害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對策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은 特委調査活動妨害事實을 調査하는 어떤 小委員會를 상설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特委調査妨害調査小委를 構成하고 그리고 告發을 하고 또 全體會議에서 告發하기로 이렇게 決議가 된다면 즉시 告發의 實務作業에 항상 대처할 수 있도록 告發小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세의합니다.

그 다음에 야카도 同僚委員들께서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法律 改正의 필요성을 金東周委員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심도 4黨에 대해서 國會 特委의 次元에서 4黨 代表에게 그 法의 改正促求決議案을 우리가 여기서 通過시켜서 그 決議를 促求를 하는 決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의 提議를 말씀드렸습니다.

(整理합니다 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基澤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特委 運營이 안고 있었던 고민거리들이 날날이 여러 委員들로부터 摘示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整理해서 決議하고 議決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맨 첫째는 여러 委員들께서 이미 합의를 해주셨습니까마는 13·14日 聽聞會日程을 16·17日로 延期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證人은 17日 聽聞會 또 來日 예정된 證人은 16日 聽聞會에 出席도록 이렇게 우리 委員會에서 可決도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異議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盧武鉉委員 委員長님! 잠시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朴相千委員께서 提起하신 實務의인 문제라는 것이 이 문제와 조금은 관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日程이 그렇게 變更되어버리면

오늘 午後부터는 日程이 存在치 않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야카 崔洛道 委員님께서 告發을 해야 한다는 告發이 마땅하다고 하는 動議는 오늘 午前證人에 관해서만 法律上 적용되고 午後하고 來日 不出席한 證人에 대해서는 물론 出席 못하겠다는 의사는 명백하게 표시했고 物理的으로 飛行機타고 오는 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現實的으로 아니고 會議가 존재해야 不出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朴相千委員님께서 提起하신 그 實務의 問題 第1項의 문제가 조금은 짊어져야 日程 變更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基澤 알겠습니다.

不出席 證人에 대한 告發問題인데 지금 朴相千委員이나 또 崔洛道委員도 지적을 하고 지금 盧武鉉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不出席 證人에 대해서 앞으로 證人들의 出席 督勵 등 여러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오늘 상당한 事由가 없이 不出席한 證人이나 來日 상당한 事由가 없이 不出席하려고 하는 證人에 대해서는 오늘 來日 것을 한꺼번에 해서 告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決定이 되면 야카 朴相千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來日 잠시라도 우리가 委員會에 出席을 해서 來日 日程을 마침으로써 不出席者에 대한 告發이 成立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方法이 하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번 聽聞會에 出席치 않을 이미 出席 못한다고 通報해온 證人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6·17日 이틀동안 우리가 日程대로 마치고 나서 17日까지 상당한 事由없이 나오지 않은 證人에 대해서 一括 告發措置를 우리가 決議한다면 지금 盧委員이나 朴相千委員이 걱정하는 部分은 해결이 된다고 原則을 이 자리에서 아직 확실하게 걱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決定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崔洛道委員 말씀하세요.

○崔洛道委員 盧武鉉委員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오늘 趙重勳證人이 나왔더라면 午後會議은 예정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趙重勳證人이 出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왔기 때문에 오늘 會議가 안됩니다. 따라서 趙重勳證人이 2時부터 出席하도

록 되어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이미 出席을 거부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午後에 續開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會側에 책임이 있는 양 말씀하시고 午後 2時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趙重勳證人에 대해서 告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趙重勳證人自身이 못나오겠다고 해서 오늘 開會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午後에 續開가 실행 안된다 하더라도 趙重勳證人은 聽開會 出席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도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되기 때문에 趙重勳證人은 적어도 出席 通知書를 받고 故意的으로 自社의 外國 행사에 參席한다는 핑계를 대어가지고 이 聽開會 出席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도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令培委員 말씀하세요.

○金令培委員 이것을 綜合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委員長께서 꼭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한 이유냐 아니냐 그 판정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각자 委員들 나름대로의 관념과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또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論難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趙昇衡委員께서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한 점을 정식으로 成案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開議 벽두에 委員長께서 證人 出席狀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 상기해 보면 이번에 不實企業整理關聯 非理調査聽開會에 나와야 될 證인이 18名입니다. 그 중에서 出席하겠다고 하는 證인이 7名 不出席 통보를 해온 사람이 9名 그 다음에 정확한 의사표시 없는 사람이 2名 이렇게 統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調査를 해야 될 것은 不出席 7名중에 海外에 나가있는 사람이 일곱입니다. 그중에 事由書를 통보해온 사람이 6名입니다.

그 다음에 手配중인 사람이 하나입니다. 收監중인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꼭 論難이 된 것이 參席할 수 없다고 하는 事由書를 보냈는데 그것이 사실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도매금으로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만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중에는 회피성 出張도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피한 事由에 의해서 外國 出張 갔는데 이것을 무조건 證人出席, 회피하기 위한 出張이다 이렇게 정확한 調査없이 단정한다는 것도 경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海外出張 간 事由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피성이 있느냐 없느냐 회피성 出張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調査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우리가 論難이 되었습니까마는 與黨 政府機關을 통해서 證인이 이 자리에 올 수 없도록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방해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糾明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張玲子證人을 아까 林春元委員이 만나보고 온 얘기를 하시는데 本人은 만나봤을 때 出席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事由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通報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通報書가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調査한 다음에 眞實性이 없고 여기에 不法性이 있다 할 때는 告發하는 전제로 해서 聽開會證人不出席實態調査小委員會를 구성해 줄 것을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그러면 人員과 調査方法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委員長과 崔洛道委員 그리고 姜信玉委員 金炫委員 이 네 委員에게 일임할 것을 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2. 小委員會構成要件

(11時30分)

○委員長 李基澤 崔洛道委員이나 朴相干委員이 動議하셨다고 할까요 意見提示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趙昇衡委員이 告發小委員會를 구성하는 제의도 우리가 會議節次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證人不出席告發問題하고 이 告發小委員會構成問題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첫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金令培委員의 의견이시고 또 두번째는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북하면 오늘

안 나온 證人부터 告發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충정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마는 그렇게 따지자고 보면 이미 우리 特委에는 證人으로 出席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이유인지 忌避性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확정된 不出席證人들이 오늘 不參한 證人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안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行爲 自體도 同一線上에서 해석하고 해석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崔洛道委員이나 朴相千委員이 조금 양보를 해 주시면 저는 명칭을 5共特委證人不出席爲證告發調查小委員會라든가 그 명칭은 좋습니다마는 告發件에 대해서 우리가 小委員會를 구성한다면 우리가 지난 번 聽聞會를 통해서 불른 事務局에서 이미 事務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日海財團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아서 僞證者들에 대한 告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特委가 앞으로 調查活動을 해 나가면서 告發해야 될 그런 事例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小委員會 구성 그런 業務를 취급할 수 있는 小委員會 구성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全體 오늘 委員會에서는 證人不出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우리 特委로서는 告發을 한 다 하는 그 원칙만 정하고 그 다음에 告發 小委員會를 하나 구성토록 하고 모든 이 告發問題는 그 小委員會로 委任해서 우리 全體 委員會가 나중에 접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金令培委員 告發小委員會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요. 그 내용을 眞實性을 밝히는 小委員會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實態調查小委員會로 하자 이런 動議인데오 本委員이 動議를 했으니까 再請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가지고 이것을 處理를 해주셔야 그것이 정당한 議事進行입니다.

○委員長 李荃澤 아니 議事進行이 정당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趙昇衡委員은 내용은 거의 같으면서도 그 명칭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金令培委員 그렇게 하시려면 잠시 停會를

해서 조절해가지고 정리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朴相千委員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午後問題하고 來日問題하고... 잠깐 停會합시다.

○委員長 李荃澤 그러면 이 提起된 문제들을 우리가 停會를 해서 懇談會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35分 會議中止)

(14時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荃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會議에서 尹錫民證人이 不出席하는 관계로 聽聞會調查를 하지 못하고 수많은 證人 不出席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當 特別委員會의 調查 運營問題를 가지고 여러 委員들께서 全向적이고 全線的인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의견을 정리 정돈하고 또 우리들 전체의 의견집근을 위해서 停會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앞으로 委員長이 낭독할 몇 가지 決議 議決事項과 그 다음에 또 議決해야 될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委員들께 이미 유인물이 배포되어서 다들 읽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運營 協議事項은 첫째 또 하나의 小委員會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證人들의 不出席事態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우리 本 特委에 보내는 證人이 많이 있고 또 사유서를 보내지도 않고 出席도 하지 않을 그런 證人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不出席事由에 대해서도 사유서 한 장만 이렇게 特委에 보낸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不出席事由가 성립될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不出席한 證人의 不出席事由의 정당성여부 및 조사방해행위 이 조사방해행위에는 출석방해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조사방해행위의 실내과약을 위하여 調查小委員會를 구성키로 하고 小委員 數는 各黨에 한 委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人으로 하되 民正黨이 特委에 積極的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各黨에 한 사람씩 해서 4人으로 구성토록 하고 民正黨이 참여하지 않으면 3人으로 구성된 이 小委員會가 앞으로 본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小委員 選定問題는 3黨 幹事들에게 委任을 해 주시고 民正黨은 委員長이 通報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調査小委員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異議가 없으시죠?

○**金令培委員** 지금 幹事會議라고 그랬죠? 人選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니까 아까 本委員이 이 내용을 동의를 할 때 幹事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委員長과 崔洛道委員 姜信玉委員 金炫委員 이렇게 네 분한테 말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背景說明을 아니해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幹事에게 말긴다 하는 얘기를 本委員이 얘기한 네 委員에게 말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서 제가 복창을 안해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小委員會 구성을 議決하는 데 별 異議없으시죠?

(異議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3. 聽聞會證人의出席日時變更의件

(14時10分)

○**委員長 李基澤** 다음에는 聽聞會證人의出席日時變更의件을 우리가 討議 끝에 議決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3月13日 오늘이 되겠습니다. 尹錫祚證人을 3月17日 14時로 證人出席하도록 하고 또 내일 3月14日의 梁正模證人 및 權哲鉉證人의 出席要求日時를 3月16日 4時로 變更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에 거명한 證人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제가 구해서 出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本委員會에서는 可決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 異議없으시죠?

○**金炫委員** 可決하기 전에 오늘 순연된 사람들은 그날은 혼자 나오셔도 틀림없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委員長 李基澤** 물론이죠.

○**金炫委員** 왜냐 하면 證人室에 가서 尹錫祚씨를 잠깐 만났는데 거기서 원망하는 것이 그날도 연장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國會도 못 믿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그 날은 하도록 합시다. 議決하겠습니다.

그리고 3月14日 來日 不出席事由書를 제출한 張相泰 金用山 金重源 이 세 證人에 대하여는 우리 當 特委에서 앞으로 調査小委員會가 구성되어서 不出席한 事由가 正當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밝혀 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일 不出席한다고 했으니까 이 不出席에 대한 要件을 成立시키기 위해서는 3月14日 出席要求가 그대로 有效한 것으로 그러니까 14日 내일 나올 梁正模씨나 權哲鉉씨는 16日로 議事日程 日時를 變更을 했고 안 나올 이 세 사람에게 대해서는 不出席要件을 成立시키기 위해서 만부득이 내일 證人들이 不出席을 했지만은 聽聞會를 成立시키기 위해서 우리 會議을 成立시키기 위해서 내일 午後 2時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會議成立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3黨會議 構成이 한 사람 빠지면 안 되죠. 한 사람인가 두 사람 빠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全員參席을 잠시 내일 午後 2時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調査活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午前에 여러 委員들께서 지적한 事項들에 대해서 決議를 하고 우리 特委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어떤 特委運營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서너 가지 部分에 대한 決議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張玲子證人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病院에서 拘置所가 아닌 病院治療를 해서 건강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國會證言臺에 나서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또 우리 特委委員들이 그러한 정상을 報告받고 여러가지 상황을 檢討했습니다마는 人權的 차원에서도 우리 特委가 그러한 상황을 복도를 안했으면 모르지마는 직접 복격을 한 이상 그리고 건강이 조금이라도 회

복되면 우리 특위에 나오겠다고 본인이 직접 陳述한 점을 참고로 해서 우리 當 특위에서는 이 張玲子女士에 대한 病院治療를 許可하도록 주선하도록 이렇게 法務部에 요청하도록 우리 특위가 決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우리 調査活動에 협조를 얻기 위한 措置으로써 法務部에 張女士의 病院治療를 許諾해 주도록 주선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하도록 決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시죠?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尹錫民證人の 拘束令狀 執行關聯問題입니다.

當 특위에 不出席한 事例에 대하여 尹錫民 본인이 當 특위에서의 證言聽取가 가능하도록 좀 當 특위가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第3者들을 통해서 여러차례 우리 특위에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不出席했습니다. 그래서 이 尹錫民씨가 지금 拘束令狀이 '발부된' 상태이지만은 우리 5共 특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國會法節次에 의해서 證人으로서 出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檢察에 먼저 拘束이 되는 것이냐 우리 國會에 出席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聽聞會에 먼저 나왔다가 자기가 구속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聽聞會에 出席할 수 있도록 재차 지난 번 幹事들이 法務部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재차 法務部에 우리 특위의 결의로서 公式으로 한번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異議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세번째 가장 중요한 決議事項이 되겠습니다.

國會의 國政調査活動에 있어서 證人出席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證人에 대하여는 當 특위에서는 證人の 安全出席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자는 이 결의와 동시에 證人の 不出席 忌避事例을 방지하기 위한... 유인물에 빠졌습니까마는 拘人制 채택 등 제반 制度的 장치

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결의를 합과 동시에 制度的 장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결의를 아까 어떤 委員이 3黨 總裁에게 건의를 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國會運營上 運營委員會에 當 특위의 결의를 한번 전달을 해서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金東周委員 證言鑑定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黨 總裁에게 건의할 필요가 없고...

○委員長 李基澤 그렇지요. 拘人制라는 것이... 國會運營委員會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趙昇衡委員 지금 여기 유인물에 분명히 「特委委員들은 證人の 安全出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特委委員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결의가 되어야겠어요. 이 유인물대로 아까 委員長께서는 特委라고 그랬는데 特委와 特委委員들 間에는 전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特委委員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李基澤 예. 그렇게 합시다. 特委 및 特委委員들은 證人の 安全出席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반조치를 취할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證人の 不出席 忌避事例을 방지하기 위한 拘人制 채택 등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의에 대해서는 運營委員會에 이 결의를 보낸다.....

그래서 지금 張玲子證人 尹錫民證人 그 다음에 國會活動 特委와 特委委員들의 證人 安全出席保障을 위한 제반조치 그 다음에 네번째가 制度的 장치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결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별 異議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있음)

예. 그러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오늘 證人들의 不出席으로 인해서 散會를 宣布합니다. 내일 두시에 本委員會 및 聽聞會를 開會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出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時23分 散會)

○出席委員

- | | | |
|-------|-------|-------|
| 李 基 澤 | 金 令 培 | 朴 相 千 |
| 梁 性 佑 | 李 東 根 | 林 春 元 |
| 趙 昇 衡 | 崔 洛 道 | 姜 信 玉 |

金東圭	金東周	盧武鉉
沈完求	金鍾植	金炫
鄭一永	崔戊龍	

○出席專門委員及立法審議官

專門委員	趙在錫
立法審議官	崔冉喆